

춧불 이후 풀어야 할 2가지 과제

“세월호 조기 인양 ... 침몰 원인 규명을”

9명 아직도 바다에 ... 대통령 7시간 밝혀야
“대통령 무능·불성실 탄핵 사유 안돼 아쉬워”

“박근혜 파면은 백년 잡된 일이지만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대통령의 무능·불성실이 탄핵 사유로 지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세월호를 인양해 우리 아이들이 죽임당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만 남았다.”(단원고 희생자 재강아빠 허흠씨)

“대통령은 몰라냈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차가운 바다에 세월호와 함께 잠들어있다. 세월호도, 우리 아이도 온전하게 어서 빨리 꺼내달라.”(미수습자 조은화양 어머니 이금희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용째인 12일 청와대에서 쫓겨났지만, 세월호는 여전히 9명의 희생자와 함께 진도 앞바다에 잠들어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이후 1064일째 팽목항 임시 컨테이너에 머무르며 세월호 인양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가 온전한 모습으로 인양돼 목포 신항으로 오는 날이 이들이 가족들과 마주하는 날이자, 희생자들이 죽임을 당한 원인을 규명하는 출발이 되는 날이라며 조속한 선체 인양을 바라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무능하고 불의한 대통령을 파면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잘못했다”면서도 “아이들의 생사를 갈랐던 7시간 동안 무능하고 나태했던 대통령의 행동을 파면 사유로 지적하지 않은 점이 못내 아쉽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조은화양 어머니 이금희씨는 다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지난 10일 오전 팽

목항 컨테이너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지켜봤다. 이정미 현재 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요지를 읽어 내려가는 20분간은 초조함의 연속이었지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간 쌓인 설움의 절반이 가셨다”고 했다.

세월호에 동생과 조카를 남겨두고 팽목항을 벗어나지 못하는 권오복씨는 “한재가 탄핵을 인용해 속이 후련하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고 진상규명도 이뤄질 것이란 희망이 든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재강이 아빠 허흠씨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7시간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온전히 알고 싶다”면서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침몰원인 규명, 7시간 행적 규명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고 말했다.

/ 전문기자 ej621@kwangju.co.kr



지난 10일 오후 진도군 팽목항에 붉은 노을이 지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탄핵 선고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 “대통령 직책 성실 수행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선고했다.

/연합뉴스

“5·18 헬기 사격·발포명령자 밝혀야”

춧불혁명 성공 ... 5·18 제자리 찾는 계기로

옛 전남도청 기념관·임 행진곡 제창 등 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5·18단체를 비롯한 광주시민사회는 다시 5·18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 전에는 불의한 권력을 쫓아내는데 촛불의 힘을 집중했다면, ‘촛불 혁명 성공’ 이후엔 그 힘의 한 축을 5·18제자리 찾기에 쓴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헬기사격 및 집단발포명령자 규명 등 5·18 진실규명, 5·18 홀대 종식, 5·18 시민군 항쟁이 옛 전남도청 건물 5·18 기념관 조성 등이

다. 12일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대통령 퇴진 이후

최소 2개월가량 활동을 이어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인 5·18 관련, 옛 도청건물 복원 및 5·18기념관 조성을 대권주자 또는 새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무자비한 학살에 맞서 꾸려진 시민군들의 활동 거점이자 최후 항쟁지였던 옛전남도청을 최대한 당시 상황에 맞게 복원한 뒤 기념관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게 이들 단체와 5·18기념재단,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의 일관된 방침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한 예술관으로 전락한 도청 건물에 새겨진 계엄군 총탄 흔적을 복원하고 당시 시민군이 회의를 열고 작전을 논의했던 상황실, 방 송실 등을 재현한 뒤 5·18관련 콘텐츠를 채운다는 것이다.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들의 시신 안치소로 쓰였던 상무관도 옛 모습을 최대한 살려낸다는 게 시민사회 의견이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아래 홀대받았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도 제자리로 찾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다. 대선 기간 유력대권주자들을 상대로 5·18기념식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다짐받기 위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또는 5·18단체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 형

식으로 광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밝히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5·18기념식장을 마치못해 참석하거나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수용하지 않는 등 광주시민의 바람을 저버렸었다.

촛불 이후 5·18단체 등 광주시민사회는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계엄군 헬기사격 탄흔을 계기로 5·18 진상규명을 새정부에 촉구한다. 정부차원으로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뒤 1980년 5월 공수부대의 도청앞 집단 발포 명령자 규명, 계엄군 헬기사격의 전모를 밝혀내 담은 5·18진상규명보고서 발간이 구체적 목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6
해진 18:38
달뜨기 19:18
달질 07:07

포근한 봄 날씨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 많음	4/14	보성	구름 많음	3/14
목포	구름 많음	4/10	순천	구름 많음	6/15
여수	구름 많음	6/14	영광	구름 많음	1/9
나주	구름 많음	2/12	진도	구름 많음	5/8
완도	구름 많음	5/14	전주	구름 많음	3/13
구례	구름 많음	3/15	군산	구름 많음	1/11
강진	구름 많음	4/14	남원	구름 많음	2/14
해남	구름 많음	3/12	홍산도	구름 많음	4/8
장성	구름 많음	2/1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2.0	북~북동	1.0~2.5
남부	면바다	북~북동	1.0~2.5	북~북동	1.5~3.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북동	1.0~2.0
	면바다(동)	북동~동	1.0~2.5	북~북동	1.5~3.0
	면바다(서)	북동~동	1.0~2.5	북~북동	1.5~3.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53	02:38		
		20:16	15:07		
		03:29	09:49		
여수		15:47	22:06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53 20:16	02:38 15:07
여수	03:29 15:47	09:49 22:06

◇주간 날씨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0/8	1/13	1/14	2/15	3/16	3/16	4/16

◇생활지수

	관심
	보통
	낮음

‘12년 제자리 걸음’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광주시, 다음달 민간사업자 공모 나선다

숙박시설 줄이고 판매시설 늘려

12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걸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다음 달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맡게 될 새로운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자와 소송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새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공모에 담을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평가 분야, 배정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검토 중이며 다른 지자체의 공모사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의 최종 결심을 받는 대로 공모에 들어가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새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 후보지는 교통 접근성이 워낙 좋은 데다 시가 판매시설 면적을 대폭 늘리기로 해 눈독을 들이는 대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천년의 빛’ 등 각종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첫 삼을 뗏지만 수년이 걸린 불발한 제거와 경기불황, 민간업체 자금

난에 공공시설 개발부담에 따른 수익성 결여까지 겹쳐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전혀 진척이 없다. 그동안 이 사업에 뛰어들은 민간사업자 4곳 모두 손을 들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용역과 민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숙박시설 축소, 상가시설 확대, 민간개발방식(민자유치)을 결정했다.

숙박시설은 14만5000여㎡에서 1만6000여㎡로 10분 1 수준으로 줄였다. 대신 판매시설은 2만4000여㎡에서 5배 이상인 13만여㎡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 개발방향은 광주시가 애초에 밝힌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시 재정부담 최소화 등의 개발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시민사회의 논란과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사업 추진에만 급급하다 보니 민자유치에 유리한 판매시설 면적만 대폭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세부적인 공모다침이 마련되는 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에도 올려놓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매 가 1억1천만

010-7384-7800

동구 수기동
상가 매매

20층 중 6층

◆ 평수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차 완비▶매가 1억4천
(웅 5천)

062-527-7600

상무지구
상가매매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

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 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걸림)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음식점,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37억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
토 48평, 건 160평
서부소방서 1분
4차선 도로 접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료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4억2천



■ 광산구 송월동 (상가건물)
토 226평, 건 86평
광주 송정역 / 광산구청 1분
2차선 도로 접 / 코너 자리
▶감정가 14억5천 → 최저가 14억5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면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6670-9800

062-527-7600